



## 2013-제1차 울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사 김정욱 

의장 엄영호 

1. 회의일시: 2013. 1. 21(월) 11:00 ~ 12:00
2. 회의장소: 행정본관 4층 회의실
3. 참석자:
  - 교수대표: 엄영호(교수협의회회장), 유종선(교수협의회부회장), 김연민(교수협의회 부회장), 전성표(기획처장)
  - 학생대표: 정래희(총학생회장), 강상묵(공과대학생회장)
  - 직원대표: 전운환(총무처장), 안종한(노동조합위원장)
  - 동문대표: 차명학(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김영식(총동문회 부회장)
  - 배 석: 이흥표(기획처 예산팀 부장)
4. 불참자: 정훈용(의과대학교수대표)
5. 개최선언
6. 성원보고: 간사  
재적 평의원 총 11명 중 10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함
7. 의원소개: 기획처장
8.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장으로 엄영호 교수협의회 회장과 부의장으로 차명학 총 동문회 수석부회장을 전원 찬성으로 선출함.
9. 심의사항
  - 의장: 오늘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오는 2월 5일 개최되는 법인이사회에 올라갈 안

건을 최종 심의하게 된다. 그럼 먼저 심의사항을 진행한다.

- 기획처장이 정관개정, 학칙개정 건을 설명함
- 의장: 심의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자문사항을 진행하기로 한다.

## 10. 자문사항

- 의장: 배석한 기획처 예산팀 이홍표 부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다.
- 이홍표부장: 201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입과 지출은 기 배정예산 2,598억여 원에서 약 14억여 원이 증가된 2,612억여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13회계연도 예산(안)은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은 각각 2,410억여 원으로 수입과 지출간의 차액은 없다.
- 김연민부회장: 추가경정은 언제 시행하는가?
- 이홍표부장: 1차 추경은 10월 29일, 2차 추경은 2월 5일 경에 시행된다.
- 유종선부회장: 등록금 수입이 많이 감소된 것 같다.
- 이홍표부장: 정원조정 154명, 등록인원 감소 208명 분을 고려하여 총 30억 정도 감소 예정이다.
- 학생회장: 2013학년도 정원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왜 감소된 정원이 적용되는가?
- 기획처장: 이전에 정원이 3천명이었는데 정원이 한번 감원되면 편제가 완성되는 4년의 기간 동안 줄어든 정원이 적용된다. 그래서 2010년 감원한 것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 학생회장: 학생경비에서 학생지원금이 23억여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왜 감소하였는가?
- 이홍표부장: 스마트캠퍼스사업, 운동부 스카웃 비용 관련, 산업체 장기 인턴십 등으로 인해 줄어들었다.
- 기획처장: 스마트 캠퍼스 사업 작년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 이홍표부장: 26억 원 정도입니다.
- 안종한위원장: 1차 추경에 상여금 13억 원이 안 잡혀있었다. 인건비는 1억 3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 이홍표부장: 예비비로 8억 원 정도 충당하였고, 외래강사로 과대예상분 4억 원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충당하였으며, 불용잔액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였다.
- 안종한위원장: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가 14억 원이 늘었다. 대학이 어

럽다는데 인건비가 늘었다. 이는 전체 인건비를 반영한 것인가?

- 이홍표부장: 다 반영하지 못하였다. 수입, 지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4억 8천만 원 정도만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 기획처장: 2013년 예산을 짜다보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일단 마이너스로 짤 수는 없어서 등록금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반영하려 한다.
- 의장: 학생 수가 줄어들면 등록금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수입부분 감소 운영이 있을 텐데, 대학 측의 대책은 어떤가? 또한 교직원 인건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 기획처장: 학교 재정상,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학생 수가 줄어서 등록금 수입도 줄었다. 임금을 동결하려 해도 자연증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건비 지출 같은 경우 시설운영비 등에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험실습비를 차감하고, 복리후생비 역시 줄여 편성하였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학측에서는 연봉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수 수도 줄어드는데 교수들이 많이 있는 학과에서 은퇴한다면 충원을 검토해야 한다. 직원 수는 줄어나가고 있다. 스마트캠퍼스 사업도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 교수학습개발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교직원 인건비는 가급적 손을 안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학생들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도 물론 유지한다
- 김연민부회장: 학생 정원을 한번 감축하면 증원하기 어려운가?
- 기획처장: 교과부 승인이 어렵다. 고교 졸업생도 줄어드는데 증원하는 것은 교과부 정책상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승인을 받기 어렵다.
- 의장: 그러면 자문사항은 여기까지로 하고, 보고사항을 진행하겠다.

## 11. 보고사항

- 기획처장이 보고사항을 설명함.
- 유종선교수: 학생들 반값등록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 기획처장: 아직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침이 없다. 현재로서는 모든 대학이 예산을 확정지어야 하는 시기이다.
- 의장: 강사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 기획처장: 강사문제는 올해 시행되면 추가로 3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다행히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내년이 되어도 대학 사정상 도저히 강사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 전임교원의 책임시수 1시간 늘리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 김연민교수: 건물건설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 묻고 싶다.
- 이흥표부장: 기숙사 완공으로 인해서 건물건설비가 많이 줄었다.
- 김연민교수: 대학원의 상황은 어떤가?
- 이흥표부장: 대학원도 등록인원이 감소할 예정이다. 올해 인건비는 27억 원 정도 줄여놓았다. 나중에 등록금 수입이 들어오는 추이를 보고 조정할 계획이다. 1차 추경에 인건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도 이해를 바란다.
- 공대회장: 수입이 없으면 임금이 낮춰서 책정되는가?
- 기획처장: 임금을 높이거나 낮춰도 임금협상을 해야 한다.
- 차명학수석부회장: 인건비의 자연증가분이 어떤 것인가?
- 기획처장: 통상 2.8% 증가된다.
- 의장: 그럼 보고사항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하고, 기타사항을 진행하도록 한다.

## 12. 보고사항

- 의장: 2013년 제2차 대학평의원회 개최 시기는 4월 중순경으로 하려고 한다.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진행하겠다. 그럼 이것으로 2013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마친다.